지금은 다시 오지 않는다



新 불교사자성어

㊸ 일기일회(一期一會)

'일기일회(一期一會)'는 '일생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기회' 또는 '일생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만남'이라는 뜻이다. 주로 다도(茶道)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 '이번 만남은 내 생애 단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일이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일기일회는 법정 스님이 수필집 제목으로 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사자성어다. 법정 스님은 수필 〈일기일회〉에서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때그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일 뿐이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했다.(필자가 정리한 것임)

일기일회는 다석(茶席), 즉 찻자리를 마련한 주인, 초정자의 마음가짐을 나타낸 말이다. 지금 당신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없는 매우 소중한 자리, 소중한 만남, 소중한 시간이므로, 정성을 다하여 차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이다. 물론 차를 대접받는 입장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나 세 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쉽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기회나 만남은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생애 단 한 번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 순간마다 정성,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면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날마다 찾아오는 날이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이다. 그래서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만일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가 여한이 없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기일회'라는 말은 중국 진(晉)나라 원언백(袁彦伯=袁宏)의 '만세일기 천재일회(萬歲一期 千載一會)'에서 비롯된 말이다. '일기(一期)'란 일테면 '그는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 주기(週期), 즉 일생을 말한다. 그리고 '일회(一會)'는 딱 한 번(一)의 만남(會)을 뜻한다. '천년에 한 번뿐인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남의 의미가 진정 소중하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한다.

선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만남)를 일기일회(一期一會)로 표현하기도 한다. 선사, 스승과의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법거량과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선승들이 깨달음을 이룬 인연이나 계기를 살펴보면 거의 한 번의 대화, 즉 한 번의 선문답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우가 많다. 깨닫기 위하여 좌선을 하지만 실제 좌선 중에 깨달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승, 또는 선사와의 만남은 진정한 일기일회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찻자리 뿐만 아니라 법회에 모인 것은 매우 드문 행운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지나고 보면 한두 번에 불과하다. 하고는 싶어도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선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어학은 나이를 먹으면 거의 어렵다. 그러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필요 여부를 떠나서 배워야 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면 술이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나 보게 된다.

지난 초봄에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제목이 선불교적인 제목이고 또 다도를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 '일기일회'에 대하여 글을 쓰게 된 것도 이 영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차를 매우 좋아한다. 정식으로 '다도(茶道)'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작설차, 보이차, 말차 등 다양한 차를 마신다. 때론 차 때문에 오는 손님도 있고, 또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

다선일여(茶禪一如). 차는 곧 선의 세계이고 부처의 세계이다. 차를 마시면서 부처의 일을 논하면 부처가 되고 선을 논하면 선사가 되고 세속사를 이야기하면 중생, 세속인이 된다.

일기일회. 당신과 만나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일생에 딱 한 번 밖에 없는 만남. 젊은 날이 다시 오지 않듯이 현재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어떤 것이 부처인가?



격절록 강설

㊸ 제16칙 무업망상(無業妄想)

[古則과 拈古와 着語]

擧, 僧問無業國師 "如何是佛" (可晒新鮮) 國師云 "莫妄想" (蒼天蒼天) 雪竇拈云 "塞却鼻孔" (知他死來多少時也) 僧又問 "如何是佛" (第二重公案) 國師云 "即心是佛" (滿口含霜) 雪竇拈云 "拄却舌頭" (啞那)

어떤 스님이 무업 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가히 햇볕을 쬔 것처럼 신선하구나!]

국사가 말했다.

"망상 떨지 말라(莫妄想)!" [아이고, 아이고!]

설두가 염(拈)했다.

"콧구멍을 막아버렸다." [그가 죽은 지 꽤 되었음을 아는구먼.]

어떤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두 번째 공안이다.]

국사가 말했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即心是佛)." [입안 가득 서리를 머금었다.]

설두가 염했다.

"혀끝으로 떠받치고 있다(=말문을 막아버렸다)." [벙어리냐?]

[評唱 1]

無業國師 商州上洛人 母聞空中曰 "寄居得否" 覺乃有娠 生而有光滿室. 出家後講經律 并涅槃般若等論.

(분주) 무업 국사는 상주 상락 사람이다. 어머니가 공중에서 "기거득부(寄居得否, 잠시 얹혀살아도 되겠습니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태기가 있음을 느꼈는데, 태어나던 날 빛(光, 神光)이 방에 가득했다. 출가 후에는 경과 율(經律) 그리고 아울러 〈열반경(涅槃經)〉과 〈반야경(般若經)〉 등의 논서(論)를 강의했다.

及見馬祖 祖器之 乃問 "巍巍堂堂 其中無佛" 師於是問曰 "三乘等學 某粗知其旨 常聞禪門即心是佛 實未能曉" 祖云 "即今未曉底心即是佛 更無別佛"

(그리고는) 마조를 친견했는데, 마조가 그릇임을 알고 물었다.

"외외당당한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국사가 이에 물었다.

"삼승의 가르침은 제가 배워서 대략 그 뜻을 알지만, 듣자하니 선문(禪門)에서는 늘 즉심시불(即心是佛)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지를 못합니다."

마조가 말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지, 달리 부처가 없다."

(마조와 무업의 문답은 다음 주 계속 이어집니다)

*분주무업(汾州無業, 760~821): 당대의 스님. 남악 문하. 분주는 주석 지명. 속성은 두杜씨. 상주(섬서성) 상락 출신. 9세에 개원사 지본스님에게 수학하고 12세에 삭발, 20세에 호북성 양주 유 율사에게 수계함. 4분율에 뛰어나고 대반열반경을 강의함. 후에 강서성 홍주의 마조 도일에게 배우고 심인을 받음. 여러 성지를 순례하고 오대산에서 대장경을 열람함. 후에 산서성 분주 개원사에 주석함. 시호는 대달大達국사.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㊸ 이해의 길 23

대승경전 붓다 말씀 아닌가?

〈서유기(西遊記)〉는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를 데리고 서역으로 유람을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이 이야기는 삼장법사 일행이 손오공의 활약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인도로 여행을 떠난 이유는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다. 삼장법사(三藏法師)가 삼장(三藏)을 구해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중국인들이 인도어로 된 경전을 번역하는 1천년 대장정의 역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인들은 근본경전, 대승경전 가릴 것 없이 구하는 대로 모두 번역하였다. 당시만 해도 경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붓다가 직접 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붓다가 입멸한 후 4~5백년이 지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붓다의 친설(親說)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대승경전이 붓다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붓다가 부활해서 설한 것이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승경전이 석가모니 붓다의 친설이라고 오해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로 시작되는 경전의 형식 때문이다. 모든 경전은 '한때 붓다께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승경전이 불설인가 아닌가 하는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지금도 남방에서는 석가모니 붓다만 인정하고 대승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대승은 붓다의 말씀(佛說)이 아니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서 부처 불(佛)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먼저 고유명사로 해석하면 부처(佛)는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가 된다. 그렇다면 대승이 석가모니 붓다의 친설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

두 번째는 일반명사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부처(佛)는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깨친 사람(覺者)'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가 된다. 그렇다면 대승은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주장 역시 옳은 것이 된다.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은 아니지만, 당시에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붓다가 되는 길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불교가 서구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붓다가 된다고 해도 신성모독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다.

그런데 대승불교 당시 출현했던 붓다들은 왜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여 마치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쓴 것처럼 경전을 구성했을까?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해도 되는데 말이다. 여기에는 스승인 석가모니 붓다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일야(一也)라는 이름의 비구가 열심히 수행해서 붓다가 되었고, 자신이 깨친 내용을 엮어 〈일야경〉이란 책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다만 그는 자신이 아니라 석가모니 붓다가 저자인 것처럼 형식을 구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어찌 보면 제자가 책을 썼지만, 너무도 존경했던 돌아가신 스승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혹자는 근본경전은 석가모니 붓다의 입으로 직접 설한 불구경(佛口經)이고 대승경전은 붓다의 뜻을 나타낸 불의경(佛意經)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대승경전은 찬불승들이 붓다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깨친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다. 그들이 설한 대승경전은 석가모니의 근본정신을 새로운 시대에 녹여낸 사상의 금자탑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 역시 대승불교를 일으킨 주역에서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